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면 기대감

광주상의·경총·삼성전자 광주사업장·협력업체 등 사면 촉구 문 대통령 4대 그룹 간담회 긍정 발언...찬성 여론 확산 분위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이 경제계에서 재차 부상하고 있다. 국내 4대 그룹 대표들이 2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청을 함에 따라 이 부회장 사면 기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패권전쟁 속에서 삼성전자의 공격적이고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힘을 얻고 있는 데다, 경제계를 비롯한 각계와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찬성 여론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지역경제계 역시 '오너 리스크'로 인한 삼성전자의 신규투자 및 의사결정 지연으로,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을 비롯한 광주·전남지역 300여 협력사 등 지역 가전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별 사면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이건희 컬렉션' 작품을 기증한 지역이 광주와 전남, 대구, 강원인데다, 고 이견희 회장의 부인 홍라희 여사의 외가와 고향이 호남이라는 점에서도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재계에 따르면 최근 경제계를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종교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가 줄을 잇고 있다.

이처럼 이 부회장의 사면 여론이 확산한 것은 세계경제에서 반도체 패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고, 삼성전자의 총수 부재가 추후 위업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신규투자자 중 중요한 의사결정을 신속히 내릴 수 있는 총수의 부재가 깊어질 경우 삼성전자의 반도체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 결국 세계 경쟁 기업들의 격차가 벌어지는 등 국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경제계도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 부회장의 사면을 촉구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상황에서 글로벌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와 가전 등 광주·전남지역 주력산업이 제자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상공회의소와 광주경영자총협회, 전남경영

자총협회 등 지역 경제단체들은 최근 이 부회장 사면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구상공회의소와 동시에 사면 서명행사를 추진하기도 했다.

광주상의는 "글로벌 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지원을 등에 업고 대규모 신규투자를 단행하는 등 환경변화에 잘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며 "이와 달리 삼성전자는 총수의 부재로 대규모 투자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결국 국내 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과 협력업체를 비롯한 지역 가전산업 발전과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광주상의의 설명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이 부회장의 사면을 찬성하는 분위기가 높다. 앞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부회장의 사면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4%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27%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9%였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는 것도 당연하지만, 국내 대표 기업 최고 의사 결정자라는 걸 감안해 국가 위기극복과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이용섭 시장이 기강 잡기 나선 이유는?

7개월만에 대면 정례조회 장애인복지관 성폭력 의혹서 비엔날레 내분·백신 접종까지 '황당한 일' 조목조목 작심 지적 잡음으로 역대급 성과 빛바래

이용섭 광주시장이 7개월만에 재개한 직원 대면 정례조회에서 작심한 듯 '기강 해이' 등을 지적하는 발언을 쏟아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시장은 2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례조회에서 "최근 (시 안팎에서) 일어나는 안 될 황당한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시 산하 장애인복지관 직원이 시설 이용자인 장애인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인권도시 광주에서 장애인 성폭력의 흑이 제기된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며 "경찰수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더라도, 담당부서에선 2차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정비도 서둘러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광주비엔날레 재단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임직원 내분 사태와 관련해선 "국제행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직원이 뽀뽀 뽀뽀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 서로 분열하고 갈등을 조래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외부기관 조사 등에만 의존하지 말고 문화경제부시장이 직접 나서 상황을 파악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이어 "은정주의에 사로잡혀 원칙에

어긋난 잘못에도 관용을 보이면 또 다른 잘못을 불러오게 되고, 성실하게 일하는 대다수 직원에게 피해를 준다"며 철저한 후속 조치를 거듭 당부했다.

이 시장은 이 밖에도 최근 하루 1만여건씩 접종되고 있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해선 "한치의 착오나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담당 부서는 백신 접종 매뉴얼을 재검토해 보완하고, 구청장들은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 등 현장에 매뉴얼을 정확히 전달해 관리·감독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이 이처럼 조직 기강을 다잡고 나선 것은 시 안팎에서 발생한 각종 잡음으로, 역대급 성과들이 빛을 내지 못하고 묻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광주시는 최근 경찰로부터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광동 준공업지역 개발 사업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받는다 하면, 이 시장의 전 운전기사와 현 수행비서 등은 비위 의혹이 불거져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올 들어 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 공장 완공, 국가 AI데이터센터 착수식, 2045 탄소중립도시 추진위원회 출범, 광주경제자유구역청 개청, 군공항 이전을 위한 범정부협업체 본격 가동, 최종중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 개소, 대학발전협력단 출범, 페퍼커피은행 배구단 유지 등 굵직한 성과만 해도 손으로 다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며 관련 직원들을 격려한 뒤 "(현재 더디게 진행되는)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사업 등 일부 시정현안도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이기 보단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 대응하면 모두 해결될 것"이라며 직원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2명·전남 1명 코로나 확산세 주춤...전국은 677명

광주·전남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2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아 총 누적 확진자는 2817명을 기록했다. 2명 모두 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았다가 확진됐으며, 감염경로 등은 조사 중이다. 광주에선 지난달 31일 5명, 1일 5명 등 이번 주 들어 3일 연속 일일 한 자릿수의 확진자를 유지하는 등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 지는 분위기다. 방역당국은 광주의 코로나19 1차 백신 누적 접종자 수가 이날 20만명을 넘어서는 등 백신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코로나19 신규 발생을 일부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에서는 지난 1일 10명, 2일 오후 2시 현재 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1일 확진자는 순천 8명, 여수·신안 1명씩이다. 2일에는 광양에서 확진자 1명이 추가돼 전남의 누적 확진자는 1479명이 됐다. 순천 확진자 8명에는 호프집 방문자 5명이 포함됐으며, 이로써 순천 호프집 관련 확진자는 누적 14명으로 늘었다. 여수와 신안, 광양에서 나온 확진자에 대한 감염 경로는 조사 중이다. 2일 0시 기준, 전국에서는 677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14만1467명이 됐다. 감염경로는 지역 발생이 654명, 해외유입이 23명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629명→587명→533명→480명→430명→459명→677명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현호 기자 khh@kwangju.co.kr



2일 광주 북구 신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예방센터에서 보건소 직원이 백신 접종을 마친 어르신들에게 백신 예방접종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백신을 1회 접종하고 2주가 지난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경로당과 복지관 등 노인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백신 접종 안전센터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예방접종확인서를 발급받는 접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정부, 부동산투기 646건 수사...20명 구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약 3개월간 646건, 약 2800명을 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본이 수사 중인 주요 공직자 중에는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등이 포함됐다. 이중 내부정보를 이용한 9명을 구속했다. 이밖에 검찰은 전담수사팀의 별도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업자 등 14명을 구속했다. 검경이 몰수·추징 등 보전 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총 908억원이다.

또 국제성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45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 탈루가 드러난 94건과 관련해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벌여 현재까지 43건, 67명을 수사 의뢰했다.

김 총리는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행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임야 단독심사
합법합당
지분환영. 010-6837-4700

치분하기 힘든 교환
전국 부동산 교환
하실 분. 010-3605-5000

2021학년도 후기 전남대학교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미래 산업발전을 견인해 나갈 고급 인재 양성!

야간과정 운영 (주 1~2회, PM 7시~11시)

-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 정규 석사학위 취득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 학점 이수(30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논문제 시행)
 -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특허출원 가능
 -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과제 수행으로 산학간 연구네트워크 구축
- 융합학 시대에 걸맞은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창의적 공학설계, 공학프로그래밍 등 혁신적인 교육 과정 시스템 운영
 - 첨단기재제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 주요일정

구분	일정	장소 및 안내사항
입학원서 작성 (인터넷으로만 작성)	2021. 6. 1.(화) 09:00 ~ 6. 10.(목) 18:00	산업대학원 홈페이지(http://gsit.jnu.ac.kr) 원서 작성(인원) 후 원서 등출력
구비서류 제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2021. 6. 1.(화) 09:00 ~ 6. 10.(목) 18:00	• 제출장소 : 산업대학원 행정실 공과대학 4호관 202호 • 제출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우81186
전형일시	2021. 6. 23.(수) 10:00 ~	지원학과(전공)에서 지정된 장소 (신분증 반드시 지참)
합격자 발표	2021. 7. 7.(수) 10:00 예정	산업대학원 홈페이지
- 모집학과(전공)
 - 건축학과/기계공학과/산업공학과/재료공학과/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토목공학과/화학공학과/환경에너지공학과/친환경농업학과/식품공학과/지역환경자원공학과/전자컴퓨터공학과(계량학과)

문의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 전화 062-530-1607 · 팩스 062-530-194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gsit.jn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주 요양병원 「급매매」

토지면적 | 10,162㎡
건물면적 | 7,296㎡ (총 3동)

- ▶1동(2017년 준공) : 3,507㎡
 - 지하 1층 ~ 지상 4층
 - 침대 수 : 200베드
- ▶2동(2012년 준공) : 2,336㎡
 - 지상 1층 ~ 지상 4층
 - 현재 주간 요양 보호 30명
 - 요양일 90명
 - 추친용도 : 암 병동 또는 치매 병동
- ▶3동(2008년 준공) : 1,453㎡
 - 지상 1층 ~ 지상 3층
 - 현재 장례식장 운영 중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매매가격 | 118억원
상담문의 | 010-3605-8564 (임선희)
나주시 우정로 56 리치타워 A동 101호
전남공인중개사

내주시 공고 제2021-778호
나주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결정(변경)안 주민의견청취 열람 공고

나주시 발달된 신촌리 산5-3번지 일원에 나주 마한천문대 조성사업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6. 3.
나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결정(변경)안
가. 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산설	A	마한 천문대	문화 시설	나주시 발달된 신촌리 산5-3번지 일원	-	총)29,568	29,568		

나. 문화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A	마한 천문대	• 문화시설 산설 - 면적: 29,568㎡	• 국립나주박물관 등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역사·문화·과학 체험이 가능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주민과 방문객에게 휴양 및 여가공간 제공

2. 관계도서 : 계획제출(열람장소 비치)
3.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1. 6. 3. ~ 2021. 6. 18.
4. 열람장소 : 나주시 도시과, 반남면사무소
5.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도시과 도시계획팀(☎ 061-339-897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법공고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에코발전소(주)와 주식회사 맛있는한끼(주)는 2021년 6월 1일 개회된 각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주)이(주)를 흡수 합병하여 그 권리 및 의무를 (주)이(주) 승계하고 (주)이(주)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본 공고 제정일 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주권자는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회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본 공고 제정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3일
(주) 주식회사 에코발전소 (200111-0504435)
광주광역시 광산구 원두로 63-1(월전동) 대표이사 이종희
(주) 주식회사 맛있는한끼 (200111-0504435)
광주광역시 광산구 원두로 63-1(월전동) 대표이사 이종희

합법공고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맛있는한끼(주)와 주식회사 에코발전소(주)는 2021년 6월 1일 개회된 각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주)이(주)를 흡수 합병하여 그 권리 및 의무를 (주)이(주) 승계하고 (주)이(주)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본 공고 제정일 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주권자는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회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본 공고 제정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3일
(주) 주식회사 맛있는한끼 (200111-0504435)
광주광역시 광산구 원두로 63-1(월전동) 대표이사 이종희
(주) 주식회사 에코발전소 (200111-0504435)
광주광역시 광산구 원두로 63-1(월전동) 대표이사 이종희

산행안내

6월13일(일)
▲광주KJ산악회 6월13일(일) 경남 남해 & 금산 두모계곡 산행, 염주체육관 07:00, 동아병원 07:05, 롯데백화점 07:10, 광주역 07:15, 문예후문 07:25, 비엔누차장 07:30
☎ 다음카페 광주KJ산악회 ☎ 010 7794 6920

69년을 밝힌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들과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역내선 •
북 구 : • 통 266-1920 • 문 266-1960
• 북 525-3761 • 신 222-9171
• 양 571-7658 • 오 265-7601
• 통 453-1503 • 우 433-1503
동 구 : • 광 382-5788 • 통 222-9054
• 통 225-6001 • 통 222-9054
• 통 222-8171
남 구 : • 통 673-6836 • 백 651-1833
• 통 673-6836 • 송 675-6605
• 진 671-7276
서 구 : • 광 382-5788 • 신 372-2352
• 서광 369-1625 • 문 376-7153
• 치 376-6511 • 문 603-0311
• 화 369-1625
광 산 구 : • 문 952-1687 • 월 959-1920
• 청 단 973-2900 • 하 955-0451
• 광 신 944-0444

光州日報 光州日報의 062-222-7900